

關闔樞와 標本中氣 從化規律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李相協¹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k, Door and Axis' with the principal of following to the 'Tip, Root and Middle qi'

Lee Sang-Hyup¹ *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Dong Eui University

Objective : I would like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y of 'Lock, Door and Axis' with the principal of following to the 'Tip, Root and Middle qi' in *Huang-Di-Nei-Jing*. It can be analysed from the relativeness among the sentences to appearing in *Shang-Han-Lun*. And consider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of the two books.

Method : First, I search out the exact meaning of 'Lock, Door and Axis' theory. Second, The principal of following to the 'Tip, Root and Middle qi' is closely associated with 'Lock, Door and Axis' theory. Third, I would like to prove that the several sentence in the *Shang-Han-Lun* are closely related to the *Huang-Di-Nei-Jing*.

Result : Zhang Zhong-jing's *Shang-Han-Lun* quote a theoretical basis in the *Huang-Di-Nei-Jing*. Furthermore, it extensively quote to explain a disease and treatment, and so on.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study hard the *Huang-Di-Nei-Jing* for understand clearly the sentences of *Shang-Han-Lun*. I think that *Huang-Di-Nei-Jing*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Zhang Zhong-jing's thinking to the disease and his medical theory.

Key Words : 'Lock, Door and Axis'(關闔樞), 'Tip, Root and Middle qi'(標本中氣), *Shang-Han-Lun*, Yangming disease(陽明病), Reverting yin disease(厥陰病).

I. 緒 論

『黃帝內經素問』(이하『內經』으로 간칭함)의 運氣 7篇 중에 나오는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은 한의학의 이론 중에서 陰陽의 속성 및 상호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론으로, 질병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歷代의 醫家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 교신저자 : 李相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52-57번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sanghyup@deu.ac.kr Tel : 051)850-8610
접수일(2013년 10월14일), 수정일(2013년 11월12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후대 의가들 중 張志聰은 『傷寒論集注』에서 六氣의 標本中氣 이론을 운용하여 전반적으로 『傷寒論』을 注解하면서 ‘六經氣化學說’을 주장하였으며 많은 醫家들이 이러한 주장에 찬동하였는데¹⁾, 특히 그의 학설을 계승한 陳修園은 그의 『傷寒論淺注』의 讀法에서 말하기를 “六氣의 標本中氣 이론에 밝지 못하면 『傷寒論』을 읽을 수 없다.”고 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內經』의 이것에 관한 論旨는 심오하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王太僕이 注釋한 것도 또한 文字에 따라 敷衍한 것에 불과하여 透徹함을 볼 수 없었고, 오직 張景岳만이 張子和의 학설에 근본하여 의미를 發揮하고 있으니 진실로 千慮一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論者가 생각하기에 張景岳도 標本中氣의 從化規律 중 陽明과 厥陰이 ‘從中氣’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牽強附會적인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게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標本中氣와 관련된 국내의 논문으로는 尹暢烈의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機轉에 관한 研究”³⁾가 있고, 중국의 논문으로는 張磊의 “六經標本中氣理論淺析”⁴⁾이라는 것이 있으며, 李星의 “標本中氣治則淺析”⁵⁾이라는 것과, 張登本 등의 “標本中氣理論在傷寒六經病辨治中的應用”⁶⁾이라는 것, 그리고 林春景의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也之我見”⁷⁾ 등이 있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內經』의 標本中氣 이론 중에 나오는 ‘陽明과 厥陰이 從中氣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三陰三陽의 六經이 인체에 있어서의 ‘공간적인 位置’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속하는 ‘關闔樞 이론’과 연결시켜서 파악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內經』의 標本中氣 이론이 『傷寒論』의 陽明病과 厥陰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六氣의 標本中氣에 대한 내용은 『素問·六微旨大論』에 나오는데,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⁸⁾ 이라고 하였으니,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를 ‘本氣’라 부르고, 三陰三陽의 六經을 ‘標氣’로 불렀으며, 標氣와 서로 대응하여 表裏관계에 있으면서 반대되는 기운을 ‘中氣’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이러한 標本中氣에 따른 질병의 발생 규율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少陽太陰, 從本; 少陰太陽, 從本從標;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⁹⁾라고 하여 少陽과 太陰은 ‘本氣’를 따르고, 少陰과 太陽은 ‘本氣’와 ‘標氣’를 따르며, 陽明과 厥陰은 標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陽明과 厥陰은 標本을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른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經絡理論 중에서 三陰三陽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關闔樞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關闔樞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關闔樞의 개념

- 8)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87-388.
- 9)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 1)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p.795-798.
- 2) 陳修園. 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5. “六氣之標本中氣不明, 不可以讀傷寒論. …… 內經此旨, 深遠難測, 即王太僕所注, 亦不過隨文敷衍, 未見透徹. 惟張景岳本張子和之說而發揮之, 洵可謂千慮之一得也.”
- 3) 尹暢烈.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機轉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7. 5(2). pp.535-542.
- 4) 張磊. 六經標本中氣理論淺析. 廣州中醫藥大學學報. 2010. 27(5). pp.531-534.
- 5) 李星. 標本中氣治則淺析. 中華中醫藥學刊. 2007. 25(6). pp.1220-1221.
- 6) 張登本, 孫運軍. 標本中氣理論在傷寒六經病辨治中的應用. 陝西中醫學院學報. 2002. 25(5). pp.1-3.
- 7) 林春景.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也之我見. 甘肅中醫. 2004. 17(6). pp.1-2.

關關樞는 인체 經脈의 생리적인 특성 및 그 상호 관계를 개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¹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關關樞에 관하여 후대 의가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楊上善의 주석을 통하여 陽經의 關關樞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門에는 세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門의 關으로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膀胱에 속하는 足太陽經脈은 禁하는 것을 주관하여 津液을 毛孔에까지 이르게 하므로 關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門의 闔으로 이것은 문짝을 말하는 것인데 開閉하는 것을 주관한다. 胃에 속하는 足陽明經脈은 眞氣가 머물러서 자라나게 하고, 반복하면서도 留滯함이 없으므로 闔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門의 樞인데 轉動하는 것을 주관한다. 膽에 속하는 足少陽經脈은 筋을 주관하는데, 諸骨을 그물처럼 엮어매어서 그것을 轉動하게 하므로 樞가 되는 것이다.”¹¹⁾

楊上善은 陽經의 關關樞 기능을 바깥을 지키는 牆壁之門에 비유하여 빗장(關)과 문짝(闔)과 지도리(樞)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陽經의 關이 하는 기능은 주로 外部의 邪氣를 ‘防禦’하는 것과 관련되고, 闔이 하는 기능은 外部에서 飲食物을 ‘輸納’하는 것과 관련되며, 樞가 하는 기능은 그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楊上善이 陰經의 關關樞에 대해서 설명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陽은 外門이 되고, 三陰은 內門이 된다. 內門에도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門의 關이니 禁하는 것을 주관한다. 脾藏에 속하는 足太陰經脈은 禁하는 것을 주관하여 水穀之氣가 속으로 輸納되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므로 關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門의 闔으로 開閉하는 것을 주관한다. 肝藏에 속하는 足厥陰經脈은 지키는 것을 주관하여 神氣가 出入하는데, 通塞함에 따라 悲樂하므로 闔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門의 樞이니 轉動하는 것을 주관한다. 腎藏에 속하는 足少陰經脈은 津液 運행하는 것을 주관하여 모든 經脈에 통하게 하므로 樞가 되는 것이다.”¹²⁾

楊上善은 陰의 ‘關關樞’도 문짝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이라고 하여 같은 문짝이라 하더라도 陽經의 문짝은 집의 외부를 보호하는 牆壁之門에 해당된다고 본 반면에, 陰經의 문짝은 내부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倉庫之門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陰經의 關이 하는 기능은 주로 인체에 있는 精氣(眞氣)를 소중히 보관하는 ‘保護’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陰經의 闔이 하는 기능은 보관되어 있는 精氣를 꺼내어서 필요한 곳에서 ‘消耗’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樞는 이러한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關	闔	樞
陽經	太陽	陽明	少陽
	外感之邪 防禦	飲食物 輸納	循環 (轉入)
陰經	太陰	厥陰	少陰
	水穀之精氣 保護	精氣神 消耗	循環 (轉出)

【표1】 關關樞 종합

10)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50-51. (『內經』의 原文에는 太陽과 太陰을 ‘開’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楊上善의 『太素』가 발견된 이후로 後代 醫家들은 대부분 ‘開’자는 ‘關’자와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誤字라고 보고 있으니, 본 논문에서는 ‘關關樞’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11)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59. “夫爲門者, 具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主禁, 津液及於毛孔, 故爲關也.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開閉也. 胃足陽明脈, 令眞氣止息, 復無留滯, 故名爲闔也. 三者門樞, 主轉動者也. 膽足少陽脈主筋, 網維諸骨, 令其轉動, 故爲樞也.”

12)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60-61.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 內門亦有三者: 一者門關, 主禁者也. 脾藏足太陰脈主禁, 水穀之氣, 輸納於中不失, 故爲關也. 二者門闔, 主開閉者也. 肝藏足厥陰脈主守, 神氣出入, 通塞悲樂, 故爲闔也. 三者門樞, 主動轉也. 腎藏足少陰脈, 主行津液, 通諸經脈, 故爲樞者也.”

여기서 중요한 것은 經絡의 關闔樞 운동은 陽經과 陰經에 있어서 그 운동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이다¹³⁾. 따라서 六腑가 속하고 있는 陽經은 주로 외부의 邪氣를 防禦하거나 외부의 飮食物을 吸收하여 내 몸에 필요한 精氣를 만드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니, 陽經의 闔에 속하는 陽明經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증은 주로 陽熱이 亢進하는 쪽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五臟이 속하고 있는 陰經은 주로 내 몸에 만들어진 精氣를 保護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消耗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 陰經의 闔에 속하는 厥陰經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증은 주로 陰血의 消耗가 지나쳐서 機能이 低下되어 陰寒해지는 쪽으로 병증이 진행되기 쉽다는 것이다.

(2) 標本中氣 從化規律

『素問·六微旨大論』편에 나오는 六經의 標本中氣에 관한 것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標氣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
本氣	寒	燥	火	濕	熱	風
中氣	少陰	太陰	厥陰	陽明	太陽	少陽

【표2】 六經의 標本中氣

『素問·至眞要大論』편에 보면 이러한 六經의 標本中氣가 從化하는 規律에 대해서 “少陽太陰, 從本; 少陰太陽, 從本從標;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¹⁴⁾라는 내용이 있는데, 후대의 의가들은 이러한 規律이 생기게 된 까닭을 주로 標氣와 本氣의 ‘陰陽屬성이 같고 다름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少陽太陰, 從本.”한다거나 “少陰太陽, 從本從標.”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무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

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少陽太陰, 從本.”

少陽相火는 標氣와 本氣의 음양 속성이 모두 陽에 속하고, 太陰濕土는 標氣와 本氣의 음양 속성이 모두 陰에 속하기 때문에 ‘同氣相求’하는 것으로 본다면 증상의 발현이 ‘從本’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② “少陰太陽, 從本從標.”

질병이 從化하는 規律로 보면 少陰君火와 太陽寒水는 標氣를 따르기도 하고 本氣를 따르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內經』에서 말하는 三陰三陽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素問·陰陽離合論』편에 보면 經絡을 三陰三陽으로 나누면서 먼저 經絡의 공간적인 ‘位置’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經絡의 ‘機能’에 속하는 關闔樞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帝曰：‘願聞三陰三陽之離合也。岐伯曰：聖人南面而立，前曰廣明，後曰太衝。太衝之地，名曰少陰，少陰之上，名曰太陽。……中身而上，名曰廣明，廣明之下，名曰太陰，太陰之前，名曰陽明。……厥陰之表，名曰少陽。’”

이것은 三陰三陽 經絡의 공간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인체의 뒤쪽에는 少陰과 太陽이 있고, 앞쪽에는 太陰과 陽明이 있으며, 그 사이에 厥陰과 少陽이 있다고 하여 表裏관계로 經絡이 인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경락의 위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太陽經은 表證을 주관하면서 ‘陽中之陽’에 속하기 때문에 인체의 外部를 보호하면서 제일 바깥쪽을 지키고 있으며, 少陰經은 ‘陰中之陰’에 속하면서 그 流注路線이 ‘貫脊屬腎’하고 있어서 인체의 제일 深層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離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經絡의 機能과 관련된 關闔樞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

13) 李相協, 金重漢.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pp.56-57.

14)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온다.

“三陽之離合也，太陽爲關，陽明爲闔，少陽爲樞。……三陰之離合也，太陰爲關，厥陰爲闔，少陰爲樞。”¹⁵⁾

關關樞 이론은 三陰三陽 經絡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離合’이라는 것은 分離되었다가 다시 會合한다는 뜻으로 陰陽이라는 것이 어떻게 三陰三陽으로 나누어져서 기능을 발휘하다가 一陰一陽으로 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少陰太陽，從本從標.”한다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少陰君火와 太陽寒水는 標氣와 本氣가 서로 반대가 되면서 그 속에는 中氣가 서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太陽과 少陰이 인체의 表裏라고 하는 공간적인 면으로 볼 때 經絡의 위치가 太陽經은 表의 極端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少陰經은 裏의 極端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中氣의 증상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③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也。”

標本中氣의 從化規律 중 가장 難解한 내용이 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후대 의가들의 注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冰：“陽明之中太陰，厥陰之中少陽，本末與中不同，故不從標本從乎中也。”¹⁶⁾

王冰은 ‘本末與中不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후대 의가들이 파악하기에는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다.

張子和：“風從火斷汗之宜，燥與濕兼下之可，萬病能將火濕分，微開軒岐無縫鎖。”¹⁷⁾

張子和는『儒門事親·標本運氣歌』에서 7言絶句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風從火’하고 ‘燥

濕兼’한다고 보면서, 모든 질병이 장차 ‘火’와 ‘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까닭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張介賓：“五行之氣，以木遇火，則從火化，以金遇土，則從濕化。總不離於水流濕，火就燥，同氣相求之義耳。”¹⁸⁾

張介賓은 厥陰이 中氣인 相火를 따라가는 것은 ‘木從火化’하기 때문이고, 陽明이 中氣인 濕土를 따라가는 것은 ‘燥從濕化’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그 이론적인 근거로 『周易·乾卦文言傳』에 나오는 “水流濕，火就燥，同氣相求.”한다는 자연의 이치에서 그 뜻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同氣相求’에서 뜻을 취한다고 본다면 ‘木從火化’하는 것은 같은 陽의 기운이므로 木의 기운이 지나치면 火로 변할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燥從濕化’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同氣相求의 원칙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張志聰은 ‘燥從濕化’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계절과 결부시켜 “陽明司四時之秋令，而太陰主四氣之清秋.”¹⁹⁾라고 해석하면서 陽明은 사계절에 있어서 가을과 관련되고, 太陰은 五運六氣의 이론 중 主氣의 변화상으로 볼 때 四之氣에 속하여 같은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연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것은 標本中氣의 從化規律를 설명하기 위해서 牽強附會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同氣相求’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高世栻의 주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氣有不從標本者，陽明厥陰是也。兩陽合明，陽之極矣，無取乎燥，從中見太陰之氣，以爲生化。兩陰交盡，陰之極矣，無取乎風，從中見少陽之氣，以爲生化也。”²⁰⁾

高世栻은 『素問·至真要大論』편에 나오는 “帝曰：

1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49-51.

1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33.

17) 張子和. 儒門事親.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卷14 p.13.

1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90-91.

19)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0. p.337.

20)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673.

陽明何謂也? 岐伯曰: 兩陽合明也. 帝曰: 厥陰何也? 岐伯曰: 兩陰交盡也.”²¹⁾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陽明과 厥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니, 곧 陽明은 ‘兩陽合明’하는 經絡이므로 陽의 亢盛이 至極한 곳에 해당되고, 厥陰은 ‘兩陰交盡’하는 經絡이므로 陰의 不足이 至極한 곳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關闔樞 이론과도 서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陽明은 陽의 闔에 속하는 經絡으로 陽의 輸納이 지극하면 陽熱이 극심한 쪽으로 병증이 진행됨을 알 수 있고, 厥陰은 陰의 闔에 속하는 經絡으로 陰의 不足이 지극하면 虛寒이 극심한 쪽으로 병증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極則必反’ 한다는 사물의 이치를 따라 陽明經에서는 燥氣를 취하지 않고 中氣인 太陰의 氣를 따라 化生한다고 보았으며, 厥陰經에서는 風氣를 취하지 않고 中氣인 少陽의 氣를 따라 化生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논자가 생각하기에 『內經』에 나오는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라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陽明厥陰’이라는 글자의 다음에 ‘極則’이라는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그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陽明經과 厥陰經은 標本을 따라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증이 極甚하게 되면 곧 標本의 氣를 따르지 않고 中氣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문장은 張介賓이 주장한 ‘同氣相求’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經絡의 機能에 속하는 關闔樞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極則必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從中氣’하는 이치를 살펴볼 것 같으면 ‘極則必反’한다는 자연의 원리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으니, 첫째 “少陰太陽, 從本從標.”에서는 三陰三陽 經絡의 공간적인 위치로 보아 太陽과 少陰이 極端적인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中氣에 대한 증상을 서로 내포하고 있으며, 둘째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에서는 經絡의 기능적인 면으로 살펴서 陽明과 厥陰이 각각 關闔樞에 있어서 闔에 속하며 兩陽合明하는 陽의 極端과 兩陰交盡하는 陰의 極端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독 陽明과 厥陰

에서만 이러한 中氣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傷寒論』에서의 활용에

標本中氣의 從化規律를 『傷寒論』에 나오는 陽明病과 厥陰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① 陽明病에서의 활용에

『傷寒論』에 나오는 陽明病 관련 조문을 살펴볼 것 같으면 標氣에 속하는 陽明의 熱이나 本氣인 燥를 따라 燥熱이 亢進하는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중간 중간에 그것이 극심하게 되면 인체의 陽氣가 지나치게 소모되면서 도리어 中氣인 寒濕의 병증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하여 陽明病의 증상이 발현되는 양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陽明病 중에 標氣에 속하는 병증들은 胃熱病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후대에서는 이것을 陽明經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白虎湯 계통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陽明病 중에 本氣에 속하는 병증들은 大腸의 燥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후대에서는 이것을 陽明府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承氣湯 계통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陽明病 중에는 標本의 氣와는 전혀 다르게 中氣인 寒濕의 병증을 표현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陽熱이 극심해지면 正氣의 소모가 많아지면서 中氣인 太陰의 寒濕病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속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傷寒論』에서 찾아보면, 191번 조문에 “陽明病, 若中寒者, 不能食, 小便不利, 手足濇然汗出, 此欲作癰瘕, 必大便初硬後溏. 所以然者, 以胃中冷, 水穀不別故也.”²²⁾라고 하여 陽明病임에도 불구하고 不能食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胃中이冷하여 水穀을 분별할 수 없는

22)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22. (본 논문에서 쓰인 傷寒論 條文의 번호는 현재 전국한외과대학 상한론 공통교재로 삼고 있는 傷寒論精解[趙開美本]를 따른다.)

2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29.

경우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194번 조문의 경우에는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嘔, 所以然者, 胃中虛冷故也. 以其人本虛, 攻其熱, 必嘔.”²³⁾이라고 하여 陽明病이지만 熱을 치료하였을 때 딸꾹질이 생기는 것도 胃中이 虛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陽明은 兩陽合明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병증의 진행 양상을 살펴볼 것 같으면 燥熱의 亢進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極甚해지면 오히려 寒濕으로 전화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② 厥陰病에서의 활용에

『傷寒論』에 나오는 厥陰病 관련 조문을 살펴볼 것 같으면 標氣에 속하는 厥陰의 藏血이 不足하거나, 本氣인 風의 疏泄작용이 低下된 것과 관련된 병증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極甚하게 되면 氣鬱의 상황이 생기면서 도리어 中氣인 相火가 속에서 發動하는 병증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傷寒論』에서 말하는 厥陰病의 개념을 “陰中之陽에 속하는 肝의 疏泄기능 失調로 인하여 少陽相火가 내부에서 鬱結되어 火熱로 작용함으로써 營血을 말리는 병”으로 볼 수 있는데²⁴⁾, 그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양상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厥陰病 중에 標氣에 해당되는 병증은 肝藏血과 관련된 병증을 설명하는 것으로, 177번 조문에 보면 “傷寒, 脈結代, 心動悸, 炙甘草湯主之.”²⁵⁾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肝의 收斂·貯藏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心動悸를 특징으로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에는 炙甘草湯 계통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둘째, 厥陰病 중에 本氣에 해당되는 병증은 風木의 疏泄기능과 관련된 병증으로, 351번 조문에 보면 “手足厥寒, 脈細欲絕者, 當歸四逆湯主之.”²⁶⁾라는 것이 나온다.

柯琴은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陰寒이 이와 같이 심하여도 乾薑과 附子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은, 相火가 肝經에 머무르고 있어서 밖으로는 비록 寒하더라도 속으로는 寒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⁷⁾고 보았으며, 따라서 그 증상이 발현되는 특징이 “먼저 厥한 자는 이후에 반드시 發熱하는데, 手足이 冷하면 冷할수록 肝膽은 더욱 熱해진다. 그러므로 厥이 深하면 熱도 역시 深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傷寒의 初起에 脈症이 이와 같은 자를 성급하게 虛寒으로 인식하여 乾薑이나 附子를 망령되이 투여함으로써 遺患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²⁸⁾고 하여 少陰病의 手足厥冷이 少陰君火의 부족에서 오는 寒厥인 것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으며²⁹⁾, 따라서 厥陰病에 속하는 手足厥冷은 肝의 疏泄기능의 저하로 循環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생기는 것임으로 이때에는 當歸四逆湯 계통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厥陰病 중에 中氣에 해당되는 병증은 陰血 虛와 疏泄기능이 低下되면서 氣鬱로 인하여 少陽相火가 발생하는 것인데, 326번 조문인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蚘.”³⁰⁾와 같이 少陽相火가 上炎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니 이때에는 烏梅丸 계통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또한 371번 조문인 “熱利下重者, 白頭翁湯主之.”³¹⁾와 같이 少陽相火의 內鬱로 인하여 아래쪽으로 挾熱下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들이 있으니 이때에는 白頭翁湯과 같이 清熱시키는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厥陰은 兩陰交盡하는 곳에 속하기 때문에 병증의 진행 양상을 살펴볼 것 같으면, 藏血 부족이나 疏泄(風)기능의 低下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極甚해지면 오히려 氣鬱로 인한 相火의 병으로 전화됨을 알 수 있다.

23)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24.

24) 李相協. 柯琴이 認識한 傷寒論 厥陰病에 관한 研究.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4). p.24.

25)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17.

26)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86.

27) 柯琴. 傷寒來蘇集. 서울, 一中社. 1992. p.195. “夫陰寒如此而不用薑附者, 以相火寄于肝經, 外雖寒而藏不寒.”

28) 柯琴. 傷寒來蘇集. 서울, 一中社. 1992. p.195. “先厥者, 後必發熱, 手足愈冷, 肝膽愈熱, 故厥深熱亦深. 所以傷寒初起, 脈症如此者, 不得遽認爲虛寒, 妄投薑·附以遺患也.”

29) 李相協. 柯琴이 認識한 傷寒論 厥陰病에 관한 研究.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4). p.33.

30)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78.

3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92.

Ⅲ. 結 論

옛 聖人들은 대자연 중에는 矛盾과 統一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을 체득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어떤 規律성을 발견하여 그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찾지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陰陽’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립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인체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內經』에 나오는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陰陽의 運動과 循環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少陽太陰, 從本.”한다는 것은 少陽相火와 太陰濕土는 標氣와 本氣의 陰陽 속성이 같기 때문에 ‘同氣相求’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병증이 발현하는 양상이 ‘從本’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少陰太陽, 從本從標.”한다는 것은 少陰君火와 太陽寒水는 標氣와 本氣가 陰陽의 속성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그 속에는 中氣가 서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太陽과 少陰이 인체의 表裏를 대표하는 經絡으로 ‘經絡의 位置’로 볼 때 太陽經은 表의 極端의 위치에 있고, 少陰經은 裏의 極端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中氣의 증상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陽明厥陰’이라는 글자 다음에 ‘極則’이라는 두 글자를 보충해서 이해해야 의미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張介賓이 주장한 ‘同氣相求’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經絡의 機能’에 속하는 關闔樞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極則必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임을 알 수 있다.

標本中氣의 從化規律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六經의 기능과 관련된 關闔樞의 ‘陰陽 운동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하는 相對的인 概念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또한 생명체의 운동규율 중 하나인 極則

必反하여 如環無端하려고 하는 ‘六氣의 循環’ 기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標本中氣로 從化하는 規律은 疾病이 進行되는 樣相을 설명함과 동시에 운동이 極端적인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中氣를 따라 陰陽表裏의 氣를 서로 調節하려는 機轉을 설명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林春景.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也之我見. 甘肅中醫. 2004. 17(6). pp.1-2.
2. 尹暢烈.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機轉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7. 5(2). pp.535-542.
3. 李相協. 柯琴이 認識한 傷寒論 厥陰病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4). p.24, 33.
4. 李相協, 金重漢.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pp.56-57.
5. 李星. 標本中氣則淺析. 中華中醫藥學刊. 2007. 25(6). pp.1220-1221.
6. 張登本, 孫理軍. 標本中氣理論在傷寒六經病辨治中的應用. 陝西中醫學院學報. 2002. 25(5). pp.1-3.
7. 張磊. 六經標本中氣理論淺析. 廣州中醫藥大學學報. 2010. 27(5). pp.531-534.

〈단행본〉

1. 柯琴. 傷寒來蘇集. 서울. 一中社. 1992. p.195.
2. 高世忒.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673.
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注.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59. pp.60-61.
4. 嚴世芸 主編, 金達鎬 外4人 譯. 國譯中醫學術史.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p.795-798.
5.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29, 533. pp.50-51, 387-388.
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90-91.
 7. 張子和. 儒門事親.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卷14 p.13.
 8.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217, 222, 224, 278, 286, 292.
 9.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0. p.337.
 10. 전국한의과대학 상한론교재 편찬위원회. 傷寒論精解. 서울. 一中社. 2003.
 11. 陳修園. 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5.